무인년 불교계 점검 '송구영신'

불교방송 송년 특집프로 다채

◇불교방송은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장르의 특집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가수 이근찬씨가 '백팔가요'에서 애창곡을 들려주고 있다.

트롯트·클래식 결산…건강법 소개도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30일~1월3일까지 음악·대담·보도·교양 등 다양한 장르의 연말 연시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특집프로에는 올 한 해동안 청취자들이 선호했던 클래식과 가곡을 선정해 방송하는 '귓가에 남는 그 선율'(30~31일, 오전9시5분~오전10시)을 비롯해 그동안 청취자의 심금을 울렸던 트롯트곡을 정리하는 '트롯트 결산 98'(30~31일, 낮12시20분~오후2시), 청취자들이 뽑은 애청 가요를 들려주는 '올 한해의 다시 듣고 싶은 노래'(30~31일, 저녁 8시5분~저녁9시) 등이 마련된다.

또 트롯트 가수들의 한해 활동을 점검해 보는 '즐거운 노래, 트롯트 99'(1월1일~2일, 낮12시10분~오후2시)와 아시아 각국의 민속음악을 소개하는 '새아침의 여행'(1월3일, 오전9시5분~오전10시) 등이 신년특집으로 꾸며진다.

정부의 실업 대책과 올 한해 불교계에 일어났던 중요 사건을 통해 송구영신할 수 있는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도 방송된다. 이 가운데 김대중대통령 집권 1년을 결산하는 '국민의 정부 1년 정치권을 결산한다'(30일, 오후7시~오후8시)와 조계종 사태를 진단해 보고 미래의 바람직한 종단상을 제시해 주는 '무인년 불교계를 결산한다'(31일, 오후7시~오후8시)는 명쾌한 해설을 통해 청취자들의 주파수를 고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생긴대로 건강법 조성태박사의 겨울철 건강 지키기'(30~31일, 오후 3시5분~4시55분), '행복스튜디오가 뽑은 올해의 10대 뉴스'(30~31일, 오전11시10분~낮12시), '무명을 밝히고, 이웃과 함께'(30~31일, 오후 5시10분~오후6시) 등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어려울때 더욱 소중한 부처님가르침을 전합시다

현대불교신문 '1구좌 1천원 법보시운동'…12월 5만구좌(누계) 돌파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불교계마저도 불화와 반목, 대립속에서 혼미를 거듭하고 있어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탐진치가 범람하고 소외와 갈등이 심할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법에 의지해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훈으로 남기신 '자등명 법등명(自登明 法登明)'의 가르침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은 97년 6월부터 부처님 가르침이 전달되기 쉽지 않은 군부대나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및 해외교민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문 보내기 법보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동참금액을 대폭 낮춰 '1구좌당 월1천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법보시는 12월 15일자로 5만구좌를 돌파했습니다.

우연히 접하게 된 한마디의 가르침일지라도 그것이 마음밭에 뿌려지면 반드시 싹이 터서 크나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부처님 가르침을 다양하게 담고있는 현대불교신문을 만나게 된다면 크나큰 인연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법보시 하시는 분들은 보시의 공덕을 짓게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더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군부대에 신문보내기 기금마련 하루찻집이 현대불교 신수회(회장 이영자) 주최로 열렸다. 사진은 12월 5일 원성스님이 현장에서 그린 자신의 그림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건강 365일 〈41·끝〉 표고버섯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콜레스테롤 감소·신진대사 촉진 심장병등 성인병 예방 치료 효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피터슨 박사는 고혈압 환자의 식단에 2g의 표고버섯을 포함시켰더니 혈중 콜레스테롤이 15% 내외로 저하됐으며 혈압이 떨어졌다는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표고버섯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심장병, 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식품이다. 또 이 버섯에는 칼슘을 비롯해 체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비타민A, 비타민B 등이 들어 있다.

표고버섯은 참나무통에서 자라는데 참나무라 함은 도토리·상수리·떡갈나무 등을 통칭한다. 참나무에는 여러 가지 버섯 종류의 약재가 서식하는데 썩은 곳에서 자라는 '천마'라는 귀한 약재도 있다. 난초과의 다년생 식물의 하나인 천마는 중풍 고혈압 두통에 널리 쓰인다.

그러면 약재와 식용등에 널리 사용되는 버섯은 어떤 곳에서 자라는가?. 버섯은 주로 고목나무 썩은 곳에서 자란다. 이처럼 나무가 썩으면 버섯이 생기듯 사람도 속을 썩히면 신진대사가 원활치 못해 고혈압과 중풍이 오며 암과 담이란 것이 생긴다. 이 담을 양방 의학에선 콜레스테롤이라 한다.

참나무를 바닷물에 10년 이상 썩히면 침향이란 귀한 약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인체의 기를 잘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참나무에는 도토리가 달리는데 이것을 우려내 하수구가 막혔을 때 부으면 기름끼로 막혔던 하수구가 쉽게 뚫리기도 한다. 도토리가 공해물질인 중금속을 해독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도토리나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표고버섯을 비롯해 천마 침향 등의 약재를 제공하며 도토리는 당뇨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등 버릴 데가 하나 없는 귀중한 나무다.

이 나무에서 나는 표고버섯은 송이버섯 상황버섯과 함께 버섯의 대부라 할 수 있으며, 어느 버섯이든 버섯은 모두 항암효과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02)762-5510

주부 신행담 불성을 찾아가는길 ②·〈끝〉

그림 · 문병성

"마음 다스릴줄 아는 지혜가 곧 진리" 바른신행 비로소 눈떠

성년이 되면서부터는 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신행생활이 즐거웠다. 사찰에서 실시하는 성지순례, 방생법회 등 웬만한 행사는 빠짐없이 참여했다. 불교를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모든 생활을 절에서 시작하고 절에서 마감했다. 심지어는 아예 절에서 생활한 적도 있었다. 이같은 생활이 굳어지면서 선입견이 들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할 것 없다. 부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자연 신행생활도 게을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주인처럼 사찰의 대소사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자는 신행생활의 척도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일이 생겼다. 매년 겨울이 오면 잊혀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다. 유난히도 추웠던 91년 겨울 어느날 전화벨소리가 길게 울렸다. 남편의 교통사고를 알리는 전화였다. 대형사고였다. 겨우 들이쉬고 내쉬는 숨만이 생존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었다.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사건이 내게도 생긴 것이다. 그날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지 모른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눈앞이 캄캄했다. 그 때의 심정은 이 세상의 어떤 형용사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부처님, 부처님'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날부터 매일같이 기도를 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찰을 다니면서 기도를 해 보았지만 그때만큼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울음이 복받쳤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도 내가 기도하면 같이 합장을 할 정도로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들도 많아졌다.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던지 남편의 건강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적같이 남편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이렇게 겨울 한철 추위와 씨름하며 생사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드는 동안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행생활은 오리에 불과했었다는 사실이다. 겉으로는 유유자적한 오리의 모습처럼 불자라고 자칭했지만 속마음은 오리가 떠있기 위해 부산한 발놀림을 하는 것처럼 산란한 마음으로 가득차 있었던 것이다. 겉과 속이 달랐던 것이다. 불자라고 절에 다니고 신행생활을 해 왔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신행생활은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제서야 마음이란 거짓이 없음을 알게 됐다. 마음은 더함도 덜함도 없이 내 자신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바로 볼 줄 아는 것, 마음을 제대로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진리임을 체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나는 새로운 신행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온갖 욕심으로 가득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비로소 나는 불성을 찾아가는 길목을 발견한 느낌으로 앞으로도 불성을 찾아 열심히 정진할 것이다.

박정선〈경북 경주시 동부동〉

현대불교를 받아보고

용기·희망얻어 갱생의 삶 꿈꿔

청송에서 온 편지

저는 한때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크나큰 죄업을 짓고 그 악도에서 벗어나려고 일심으로 참회정진하고 있는 수인입니다.

이곳까지 현대불교신문을 보내주시는 이름모를 청명한 불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적지 않은 감동과 지혜를 안겨준 현대불교신문 가족들과 법보시하신 분의 덕분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새로운 갱생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었음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조그만 도움도 줄 수 없는 몸이지만 지금까지 받아온 많은 분들의 따뜻한 사랑을 앞으로는 갚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더욱 더 참회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홍돌이〈청송교도소 불교회장〉

감동과 자비법음에 따뜻한 겨울

원주에서 온 편지

라니뇨 현상 때문에 올해 겨울은 몹시 추울거라는 예보가 있었지만, 우리 원주교도소 불자님들은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천원 법보시 후원자'들이 보내주신 현대불교신문을 서로 돌려 읽으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우리들에게 밝은 지혜와 참된 삶의 지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자님들은 아직도 따스한 마음을 잃지 않고 내일의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면서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준 현대불교신문사의 고마움에 감읍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정철주〈원주교도소 불교반장〉

중생위한 무주상보시에 감사

춘천에서 온 편지

지나온 한해동안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하여 무주상보시하여 주신 바다같으신 은혜에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도 부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의 광명이 함께 하옵시기를 기원드립옵니다.

새해에는 하시는 일일마다 무한한 발전을 바라옵니다.

김종한〈춘천교도소 불교회장〉

수행 채찍…베풀어 준 은혜 감사

목포에서 온 편지

평소 베풀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최종해〈목포교도소 불교교리반〉

새해도 지혜 가르침 널리 펴길

대전에서 온 편지

한해동안 부처님의 지혜의 가르침을 많이 주시어 고마움과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현대불교신문이 더 좋은 부처님 감로수가 되시옵고 편집국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옵고 부처님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옵소서.

신종찬〈대전교도소 수형자 불교반장〉

'법보시' 이렇게 보냅니다

발송단체명	부수	발송단체명	부수	발송단체명	부수
군법당	213	장애인복지	12	복지관련대학	43
경찰서	240	부랑인복지	3	불교병원	65
교정청	2	청소년복지	18	국군병원	45
교도소	128	지역복지	21	경찰병원	6
구치소·감호소	77	사회복지	26	기타 사회단체	137
소년원	13	신용협동조합	8		
감별소	6	사회복지협의회	14	947건	1,212부
아동복지	38	종별협회	9		
노인복지	24	기업복지기관	65		

(98년 9월1일 이후)

법보시 후원자 명단

현대불교신수회(이영자 이매림 김재화 목영태 이란 조명숙 이희명화 최성구) 간종흠 강경중 강말숙 강미영 강민정 강병현 강북복지관 강성욱 강숙희 강순영 강신택 강옥구 강인성 강인숙 강장옥 강정기 강정화 강정회 강지숙 강춘계 강태근 강태복 강현숙 강황진 경순자 고계환 고광진 고덕현 고영배 고영이 고은주 고재선 고필선 구필회 권갑남 권계순 권동희 권미경 권복자 권성행 권순 권순혁 권연지 권영숙 권영현 권오진 권옥숙 권은경 권진순 권차순 권춘순 기현정 김경선 김경수 김경숙 김경열 김경옥 김경혜 김경훈 김경희 김광숙 김광순 김광태 김교안 김국중 김규정 김근삼 김근영 김금순 김기춘 김길운 김남석 김대현 김덕임 김두영 김록인 김명덕 김명훈 김문자 김미란 김미명 김미선 김미숙 김미순 김범수 김병서 김병주 김병철 김복남 김봉윤 김봉해 김상덕 김상림 김상분 김서분 김석순 김석용 김선남 김성경 김성민 김성순 김성자 김성진 김성혜 김성희 김수영 김수희 김순남 김순녀 김순덕 김순련 김순식 김순옥 김승재 김승지 김식자 김신엽 김애란 김애리자 김애자 김양순 김여경 김연득 김연자 김연희 김영란 김영만 김영배 김영삼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아 김영자 김영희 김옥 김옥경 김외선 김용구 김용범 김원순 김원용 김원우 김유학 김윤성 김윤중 김윤환 김윤희 김인성 김인희 김일동 김자경 김정란 김정선 김정숙 김정은 김정이 김정자 김정주 김정희 김제철 김종미 김종애 김종옥 김준만 김준모 김준엽 김준형 김준희 김지헌 김철수 김춘호 김춘화 김춘희 김태현 김태훈 김택곤 김한나 김헌 김현수 김현숙 김형창 김형철 김혜경 김혜기 김혜숙 김혜옥 김호 김호영 김호종 김화남 김화수 김활수 김희남 김희수 김희순 나숙희 남성수 남성진 남수경 남수미 남일우 남철수 노만호 노유택 노윤택 노진희 노향순 노혜숙 농협익명 덕운화 뎡형관 도옥희 도재권 동사섭 류경훈 류봉수 류영란 류정님 류조형 마정혜 마진호 명세정 모영희 목포지사 무명 문명순 문병기 문상철 문숙자 문순조 문화자 민경주 민소영 민승자 민응식 박경선 박경숙 박광용 박광호 박금숙 박남순 박내순 박명의 박미경 박봉주 박상규 박상기 박상섭 박석열 박성례 박성수 박성진 박수진 박숙경 박승희 박신영 박양님 박양임 박양자 박영애 박영준 박옥남 박용무 박용숙 박용자 박원규 박윤기 박윤식 박익형 박재련 박재진 박정산 박정순 박정자 박제원 박종두 박주연 박준호 박진환 박찬연 박찬혜 박천혜 박철수 박춘자 박태규 박필원 박현순 박현주 박혜명등 박혜숙 박혜진 방금순 방명섭 배동금 배병진 배성호 배연수 배춘자 백상준 백성옥 백양심 백유선 백현기 백혜원 박경선 법인스님 법현스님 변미자 본사직원 본원신도 봉철웅 부산신도회 부산지원 사당5동법회 상미욱 서귀연 서말희 서병학 서부웅 서옥경 서울은행 서윤아 서정숙 서준 서진 서최선 서춘건 서형관 서혜빈 석해월 선유진 선장재 선정호 선현자 설갑문 설정수 설지석 성동환 성민자 성재영 성필제 성호승 손금화 손봉희 손상률 손정숙 손혜숙 손화자 송규환 송미애 송복희 송양숙 송연숙 송인영 송정구 신기호 신미향 신복순 신상섭 신순희 신시균 신원민 신유진 신윤진 신재철 신조현 신진임 신택건 신호용 신흥재 심광엽 심단회 심묘희 심성학 심희주 안성모 안영선 안진후 양병덕 양영애 양은숙 양의군 양정순 엄정임 영등포법회 오동규 오두환 오미환 오병현 오선희 오송준 오순자 오승종 오주희 오진희 오창일 오창희 오헌승 오현자 오형만 용산구 용환웅 우경애 우금식 우상용 울산한마음 원정옥 유금자 유미양 유선재 유양상 유은경 유인묵 유재춘 유정연 유정용 윤경애 윤경희 윤기수 윤병창 윤병혜 윤상문 윤석범 윤성 윤옥희 윤인자 윤재경 윤제학 윤준상 윤지웅 윤지은 윤창섭 윤태원 윤향숙 은경애 이강희 이경민 이경숙 이경아 이경원 이경인 이경자 이계선 이관형 이구자 이귀숙 이규만 이규환 이금순 이금주 이기오 이기철 이대섭 이덕의 이동기 이명규 이명순 이명자 이묘연 이미경 이미나 이미자 이번택 이범규 이병만 이보경 이복순 이봉우 이분순 이상란 이상욱 이상운 이성재 이송자 이숙희 이순량 이순옥 이순자 이순천 이순호 이순희 이승은 이승훈 이신정 이씨 이아리 이양희 이연옥 이영숙 이영순 이영조 이영희 이오석 이옥영 이옥형 이옥희 이유순 이윤옥 이은주 이은진 이의남 이인상 이인숙 이임순 이장혁 이재국 이재윤 이재화 이점자 이정녀 이정례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이정자 이정혜 이정희 이종돈 이종석 이종철 이준석 이준재 이준희 이중근 이지영 이지형 이진경 이진수 이진영 이진철 이창운 이창하 이창호 이철주 이태우 이태인 이태훈 이태희 이필순 이한희 이현숙 이현실 이현안 이현양 이현주 이형호 이혜란 이혜숙 이화숙 이화영 이효순 익명 인천신행회 임기남 임명옥 임명진 임선원 임소연 임옥재 임완숙 임우식 임종미 임춘심 임해순 임형대 임희자 장금강심 장미 장미숙 장점 장정숙 장정자 장정희 장축자 장해기 전계연 전규백 전병임 전복순 전삼우 전순남 전승현 전연석 전연택 전위자 전정희 전현수 전현진 정계영 정구순 정금관 정금란 정동한 정모아 정문식 정미경 정미련 정미향 정미형 정민아 정복순 정분선 정삼준 정상열 정숙점 정연동 정연봉 정연석 정연태 정연희 정영기 정옥녀 정옥찬 정운욱 정점오 정정국 정정숙 정정자 정진욱 정필수 정필순 정학선 정해정 정해택 정현동 정훈채 조경자 조귀자 조남섭 조남주 조미란 조미숙 조상호 조양식 조영숙 조옥희 조원희 조유복 조윤숙 조윤호 조은미 조정현 조혜숙 조혜연 지로봉사모임 지유미 지청인 진경수 진영숙 진옥례 진육상 진원중 진재영 진재용 차동호 차상환 차용옥 차현주 채희순 천재경 천현숙 천화조 청주교도소 최경락 최경진 최범순 최병언 최복내 최상철 최서윤 최석원 최성근 최성휴 최심형 최영도 최영명 최영봉 최영숙 최은희 최재두 최재철 최재혁 최정근 최정기 최정문 최정희 최주현 최행선 최형선 최희원 추철희 충남대교수불자회 표혜명 하금자 하명자 하홍용 한국여성불교 한기선 한마음심원 한명숙 한미순 한병소 한상현 한숙희 한순자 한아름 한임련 한철희 한춘영 한태희 한효심 함광점 함기석 함명억 함영숙 함지윤 허명희 허상임 허선숙 허성국 허수자 허재승 허종환 허찬응 허희숙 현수천 현월스님 현추월 혜월당 홍기장 홍명숙 홍소순 홍순아 홍영순 홍영호 황금철 황기용 황영분 황옥란 황옥석 황옥순 황점숙 황정옥

〈9월1일~12월15일 · 744명〉